

# 1920年代 民族主義 詩論의 形成에 대한 言語文學的 研究

楊 熙 喆

- |                           |                  |
|---------------------------|------------------|
| I. 序                      | III. 民族主義 詩論의 樣相 |
| II. 民族主義 詩論의 言語文學的<br>發生因 | IV. 民族主義 詩論의 共通素 |
|                           | V. 結             |

## I. 序

1920년대의 詩史的 중요성은 民族主義 文學의 성립기란 점에서 찾아진다. 1920년대가 民族主義 文學의 성립기라는 주장은 어제 오늘에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만큼 연구도 많이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國民文學派의 形成과 理念에 대한 論文<sup>1)</sup>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 時代가 식민지 時代라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대다수의 研究들이 社會史나 精神史의인 立場에서, 1920년대를 민족주의 文學으로 結論을 내리고 있다. 文學이 한 時代와 그 社會를 通하여 產出된다는 點에서, 기존 研究들의 社會史나 精神史의인 접근 방법은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지나치게 社會史나 精神史의인 面만을 강조할 때에, 文學의 社會史의이고 精神史의인 側面을 충분히 理解할 수는 있지만, 文學이 갖는 또 하나의 存在 양식인 言語藝術性을 상실하게 된다. 어찌 보면 1920년대에 일고 있던 內容과 形式의 대립 中에서 內容만을 강조하는 側面과 通하기도 한다.

1) 吳世榮, '1920年代 韓國 民族主義 文學 研究', 『東洋學』 11호(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81), pp. 55~79.

文學이 社會文學인 동시에 言語文學임을 不認할 수는 없다. 적어도文學이 時空的으로는 社會文學이지만, 時代적 存在樣式으로는 言語文學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言語文學的인 立場에서 1920년대의 韓國民族主義詩論의 成立을 파악하려 한다.

民族主義的 韓國文學을 定義하면, 韓國인이 韓國語로 韓國人の 生活思想感情情緒를 韓國的 形式으로 表現한 文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定義는 韓國文學論의 건립기에 이미 있어 왔는데, 1920년대의 詩論을 韓國民族主義詩論의 成立期로 結論지으려면, 저들 定義와 부합되는 공통소를 찾아야 한다. 이를 찾기 爲하여 言語文學的으로 한국民族主義의 成立에 따른 原因을 찾아야 하며, 그들 原因들은 어떤 形態로 나타나는가 하는 樣相을 검토하여야 하고, 끝으로 그 樣相들에 基底한 共通素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共通素가 民族主義文學의 概念과 일치할 때, 1920년대를 韓國民族主義詩論의 成立期라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近代民族主義詩論의 發生因을 言語文學的으로 찾고, 樣相을 살피고, 共通素를 整理하는 順序로 目標에 이르고자 한다.

所期の 目標에 도달하기 위한 對象으로는 1920년대의 文學 전반이 해당된다. 그러나 본고의 限界上 詩歌의 詩論에 限定하려 한다. 作品을 통해서 接近할 수도 있고, 詩論이나 評論을 통해서 接近할 수도 있다. 양자 모두를 섭렵하면 文學史的 接近이다. 그러나 後者만을 通할 때는 批評史的 接近이 된다. 게다가 詩歌의 詩論만을 살필 때는 詩歌批評史에 接近한다. 이로인해 본고는 言語文學的 側面에서 詩歌批評史的으로 1920년대를 韓國民族主義詩論의 成立期로 파악하려는 試考라 할 수 있겠다.

## Ⅱ. 民族主義詩論의 言語文學的 發生因

言語文學的으로 民族主義詩論이 發生케 되는 동기는, 크게 보아 文學의 言語藝術性 認識과, 外國詩語의 特性認識에 따른 韓國語 特性의 탐색

要求와, 外國詩形의 特性認識에 기인한 韓國의 詩形의 탐색 要求와, 1910년대까지의 外來志向으로부터 오는 表現內容의 反省과, 寫實主義의 移入 受容에서 오는 韓國의 現實性 증시와, 國民 傾向文學의 文學運動 등등에서 찾을 수 있겠다.

### A. 文學의 言語藝術性 認識

文學은 말이나 글이라는 言語로 表現된다. 그런데 文學을 言語로 수행하면서도 文學의 言語藝術性을 認識하지 못하면서 文學行爲를 하는 경우와 文學의 言語藝術性을 認識하면서 文學行爲를 하는 경우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 문학의 언어예술성을 인식치 못하고 단지 言語로 文學을 할 때는, 다분히 惰性的이며 模倣的이며 졸렬한 作品 行爲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文學의 言語藝術性을 認識하면서 文學을 할 때는 言語 特性을 이용하면서 表現 구사하기에, 타성보다는 새로움을 모방보다는 창의성을 보이면서 새로운 모색을 시도케 된다. 1910년대를 1920년대와 비교하면 개화기 이래의 1910년대는 개화의 물결아래 言語藝術性을 인식치 못하면서 開化歌辭와 같이 고래의 가사 형식을 모방하거나 唱歌나 新體詩나 自由詩처럼 외래의 형식만을 모방한다. 그러나 1920년대는 言語藝術性의 認識이 두드러지면서 詩의 새로운 모색에 동인이 된다.

第二詩歌는 心琴의 詩歌가 文字와 言語의 約束만흔形式을 받아 表現된 文學의 詩歌라고 할만한것입니다.<sup>3)</sup>

詩란………音律의 言語로 表現한것이올시다.<sup>3)</sup>

노래로 말하여도 이는 문학에 속한것이니 음악이나 무도나 도각과 달리문자라는 형식을 취해야할것이오.<sup>4)</sup>

2) 金岸暉, '詩壇의 一年', 『開關』 42호(1923.12), p. 41.

3) 梁柱東, '詩란 엇더한 것인가', 『金星』 2호(1924.1), p. 103.

4) 朱耀翰,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二)', 『朝鮮文壇』 2호(1924.11), p. 47.

人生의 感情이 言語에 表現되야 言語로 生기는 여러가지 變化와.....<sup>5)</sup>

그럼으로 詩歌는 一個의 獨立한 言語의 藝術이다.<sup>6)</sup>

文藝의 美란 (一)構想의 美·(二)表現의 美·(三)內容의 美를 가리친 것이다.  
.....表現의 美라 함은 用語·文體의 美요.<sup>7)</sup>

詩는 온전히「말」의 效果로서 그 價値가 決定되는 것이요.<sup>8)</sup>

더욱 詩歌에 니르러서는 言語가 곧 詩歌라 하지 않을 수가 업서 말하자면..... 詩歌에서 言語가 賤待되며 驅使된다 하면 그 詩歌는 文字의 排列에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sup>9)</sup>

文學이란 結局 人間思想을 다른 사람에게 傳達키爲한 言語의 表現이다.<sup>10)</sup>

놀애는 言語로 말미암아 表現되는 한 藝術이다. 놀애의 生命과 價値가 言語 그것에 매어 있다 하여도 可하다.<sup>11)</sup>

위 인용에서 살필 수 있는, 詩와 노래란 <文字와 言語의 約束 많은 形式을 밟아 表現된 文字> <音律의 言語로 表現한> <문자라는 형식을 취하여> <言語에 表現되야 言語로 生기는> <一個의 獨立한 言語의 藝術> <用語 文體의 美> <말의 效果> <言語가 곧 詩歌> <言語의 表現> <言語로 말미암아 表現되는 한 藝術> 등등의 표현에서, 1920년대의 詩論들은 詩나 노래의 言語藝術性을 파악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문학의 言語藝術性 認識은 韓國語를 수단으로 하는 그 당시의 시인들에게 韓國語의 특질로 눈을 돌리게 하였을 것이다. 시인들이 한국어로 눈을 돌릴 때에 이는 벌써 言語的인 民族主義를 발생케 하는 동인이다. 게다가 다음 항에서 언급하려는 外國詩가 가지는 外國詩語의 특성 인식에 따른 韓國詩語의 탐색 요

5) 金億, '作詩法(五)', 『朝鮮文壇』 11호(1925.8), p.77.

6) 金基鎭, '詩歌의 音樂의 方面', 『朝鮮文壇』 11호(1925.8), p.62.

7) 李光洙, '藝術評價의 標準', 『東光』 創刊號(1926.5), p.42.

8) 選者, '詩選後言', 『朝鮮文壇』 17호(1926.6), p.115.

9) 金岸曙, '밟아갈 朝鮮詩壇의 길(上)', 『東亞日報』(1927.1.2).

10) 梁柱東, '文壇如是我觀(二)', 『新民』 26호(1927.6), p.89.

11) 李秉岐, '時調의 現在와 將來(完)', 『新生』 2권 6호(1929.6.1), p.32.

구가 가져오는 言語의 民族主義는, 문학의 言語藝術性 認識에 기인한 言語的 民族主義와 더불어, 韓國語를 강조하는 民族主義 詩論을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B. 外國詩語의 特性 認識과 韓國語 探索의 要求

1910년대의 해외문학 이입은 二重三重譯과 部分性을 특징으로 하는 아직도 초기 단계다. 이에 비해 1920년대는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하는 동시에 외국어 해독자도 증가하고 직역에 가까운 번역과 全般性을 특징으로 하다가 해외문학파를 정점으로 본격적인 위치를 점한다. 외국문학의 번역과 더불어 유입된 그들 문학의 특성들——외국시의 言語的 存在樣式의 특성들을 파악키 시작한다. 이들 파악이 韓國詩歌의 言語的 存在樣式인 韓國語의 특성을 탐색케 하여, 韓國語를 중시하는 言語的 民族主義를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平仄法은漢詩나西洋詩에 볼수있는것인데 語言의 抑揚長短으로나온것입니다. .... 다음에押韻法 押韻이라함은同音의反覆를말함인데, 頭韻 脚韻等여러가지種類가있습니다만은 흔히 西洋詩에나漢詩에나脚韻이만듭니다.<sup>12)</sup>

문자 예술에 속한 덧허한예술품을 감상한다하더라도 반드시 언어의 미물리해치 못하고는 불가능한것을 봅니다. 러시아의푸시킨이 외국인의 감상을 못받는것은 그 언어가 너머러시아덕인사람이란 말을 드렸습니다. 산문을 가지고도 언어의 리해력(리해력보다도 감상력 그 켈리케트한 미를 맛보는 힘)이업 시는 완전한 애독자가 되기 어렵다 하는것이 명론입니다. 하물며 노래에 이르러서리오. ....조선말의 근본미를 일렀다 할것이 태반입니다. ....장차는 조선말의 진정한 미를 차저드려갈것은 의심업으며 또 그리 하여야 할것입니다.<sup>13)</sup>

그리고朝鮮말로는 性質上 西詩와漢詩가치 抑揚과押韻할수는 업습니다. 또엇지 되야 押韻같은것을抑志로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아모效果도업고.....<sup>14)</sup>

12) 梁柱東, '詩와 韻律', 『金星』 3호(1924.2), pp. 79~80.

13) 朱耀翰,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三)', 『朝鮮文壇』 창간호(1924.12), p. 43.

14) 金岸曙, '作詩法(四)', 『朝鮮文壇』 10호(1925.7), p. 80.

지금 이것들의 그音樂的要素를指摘하자면 feet 와 rhyme 으로부터더 나아가서仔細하게 말하자면 저지반英詩의 Versification 을 다이야기하지 아니하면困難하겠으므로省略한다. 英語를조금이라도아는사람이면 이詩의맛은 두어번만읽어보면能히알 줄로생각한다. ……내가보고아는範圍 안에서 말하면佛蘭西의詩는英詩모양으로악센트로因하여發生되는 Feet 에 效果를 낳아내이지 못하고 찰하리 그셀라불의數交와個個의字母音이發하는音色으로말미암아效果를 낳아낸다. 이點에 있어서朝鮮의詩는佛蘭西詩와 類似하다고 생각한다.<sup>15)</sup>

인용 의미도 이와 유사한 글들은 상당히 많으며, 인용만으로 보아도 저들의 공통은 外國詩의 言語의 存在樣式이다. 중요한 대상은 漢詩와 西歐詩(英詩·佛詩·러시아詩) 등이며, 저들 詩가 갖는 作詩法의 特性——平仄法 押韻 脚韻 악센트 실라블 feet rhyme verification 등이 운위되는데, 이들 모두가 그들 詩에 관련된 그 나라 말의 특성과 연관되면서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外國詩의 作詩法이나 詩語가 그 나라 말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식은, 韓國詩의 作詩法이나 詩語가 韓國語의 특성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요구하면서, 韓國詩에서 韓國語의 특성 탐색과 강조라는 言語의 民族主義를 발생케 하는 동인이 된다 할 수 있겠다.

### C. 外國詩形의 認識과 韓國的 詩形의 要求

外國詩形의 認識은 그들 詩와 詩論 특히 形式論의 移入과 受容에서 출발하고, 다시 詩語의 특성 인식과 관련된다. 1910년대 후반부터 移入受容된 自由詩形의 인식은, 1920년대의 韓國의인 詩形의 모색이라는 民族主義 詩論을 유발케 하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된다.

그러기에 支那사람에게는 支那사람다운調和가있고 프랑스 사람에게는 프란스 사람다운 調和가 있지요……即말이 肉體의調和인 以上에는 그文章도 그調和를 具體化된것인것을말씀하여야 하겠습니까. 因襲에起因 되기때문에 佛文詩와英文詩가 달은것이요. 朝鮮사람에게도 朝鮮사람다운詩體가 생긴것은母論이외다.<sup>16)</sup>

15) 金基績, *op. cit.*, p. 66.

16) 岸曙生, '劣拙한 井見을 海夢兄에게 詩形의 音律과 呼吸', 《泰西文藝新報》(1919. 1. 13).

民族의 見地로 보아 朝鮮사람에게는 다른 民族과는 다른 朝鮮사람의 固有한 一般의 呼吸이 잇슴을 니줄 수가 업스니……<sup>17)</sup>

‘朝鮮사람에게도 朝鮮사람다운 詩體가 생긴’ ‘朝鮮사람에게는 다른 民族과 다른 朝鮮사람의 一般의 呼吸’ 등에서, 자유시형의 인식이 민족적 시형의 모색으로 연결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단순한 모방을 지나 자기 인식적인 자기 발견의 民族主義 詩論에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自由詩形의 認識이 韓國的 詩形의 탐색에 영향을 준 것은 內在律에서 찾아진다. 앞에서 인용한 金億의 글도 내재율의 범주라 할 수 있다. ‘詩形의 音律과 呼吸’에서 인용한 위 글은, 詩를 心靈의 산물로 보면서 그 心靈의 呼吸에 의해 詩의 音律이 좌우됨을 말하는 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心靈의 呼吸은 함께 프랑스 象徵派 詩의 影響을 받고 있는<sup>18)</sup> 黃錫禹나 梁柱東의 詩論에서도 발견된다.

律이라 함도 이 自由詩의 或 性律을 일음입니다. 이律名에 至하야는 사람의게 依하여 各各 或 內容律, 或 內在律, 或 內律 或 心律이라고 呼喚합니다. 그러나 이 律은 自由律 各 個性律을 形容하는 同一意味의 말입니다. 나는 此等 種種의 名을 包括하여 單히 ‘靈律’이라 呼喚려 합니다.<sup>19)</sup>

內容律은 各 詩人 그 사람의 呼吸이오 生命입니다.<sup>20)</sup>

黃錫禹의 ‘靈律’이라든지 梁柱東의 ‘그 사람의 呼吸’ 등은 모두가 內在律을 의미하면서 金億의 ‘心靈의 呼吸’과 통한다. 이런 自由詩의 內在律 認識은 시인의 民族的 特性이나 시인이 구사하는 言語로 눈이 돌려지면서 민족적인 음률이나 그 민족의 언어적 시형으로 향한다.

朝鮮사람으로는 엇더한 音律이 가장 表現된 것이겠나요. 朝鮮말로의 엇더한 詩形이 適當한것을 논져 살피야합니다.<sup>21)</sup>

17) 金岸囁, ‘남아질 朝鮮詩壇의 길(下)’, 《東亞日報》(1927.1.3).

18) 金澤東, 『韓國近代詩의 比較文學的 研究』(서울: 一朝閣, 1981), pp. 20~135.

19) 黃錫禹, ‘朝鮮詩壇의 發足點과 自由詩’, 《每日申報》(1919.11.10).

20) 梁柱東, ‘詩와 韻律’ 『金星』 3호(1924.2), pp. 83~84.

21) 岸囁生, *op. cit.*,

元來自由詩라는 形式은 西洋서은 것이지만 西洋말과 우리 말과는 性質이 달음으로 그대로 옮길 수가 없었습시다.<sup>22)</sup>

朝鮮詩의 內容律은 語音과 語勢 이 두 가지에 잇다고 나는 생각 합니다.<sup>23)</sup>

첫 인용은 한국인에 적합한 音律과 詩를 찾는 金億의 목소리며, 두번째 인용은 서구 자유시의 受容에서 빚어진 한계를 설명하면서, 세번째 인용에 이르러 한국 시형이 가져야 할 內在律을 語音과 語勢에서 찾는 梁柱東의 목소리다.

이처럼 外國詩形 특히 自由詩形이 갖는 內在律의 認識은 各民族과 그들 언어에 기반한 형식임이 확인되면서 韓國人의 韓國語的인 心靈의 呼吸에 맞는 韓國的 詩形을 찾게 된다. 이같은 韓國的 詩形의 모색이 形式的 民族主義를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D. 表現內容의 反省과 自己表現의 要求

개화기 이래의 교훈적이고 타설적인 내용과 1910년대 신시 운동의 내용적 의태 저항성을 반성하는 시기가 1920년대다. 표현 내용이 우리 것이 아닌 외래 것이었다는 사실을 반성하면서, 적어도 우리 것을 표현하여야 한다는 자각이 表現內容의 민족주의를 이끄는 동인이 된다.

우리의 詩壇에 發表되는 대개의 詩歌는 安단하여도 朝鮮의 思想과 感情을 背景한 것이 아니고 잊지말하면 구두를 신고 깃을 쓴듯한 改作도 翻譯도 아닌 作品입니다. ………우리 周圍의 詩作에는 우리의 周圍를 背景잡은 思想과 感情은 하나도 없고 남의 周圍를 背景잡은 思想과 感情을 빌어다가 우리의 詩作을 삼는 傾向이 잇슴에 따라 眞正한 「朝鮮現代의 詩歌」를 어더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는 外來詩歌의 影響을 받음에도 關係되겡습니다. 만은 담기울 物件과 그릇을 생각지 아니한 까닭인줄 압니다.

당말로 現代의 朝鮮心을 理解하는 詩人이 잇다하면 그 詩歌는 一般은 물론나 잇던 큰 部分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共鳴의 音樂을 줄줄 압니다. 이러한 評價

22) 梁柱東, '詩란 엇더한 것인가', 『金星』 2호(1924.1), p.109.

23) 梁柱東, *op cit.*, p.84.

맛을 만한 作品이 업슴에는 詩를 쓰는 이가 時代相의 充分한 理解者가 되지 못하여 現代의 朝鮮心의 苦悶과 엇걸 수 업는 苦惱와 而對하야 보지 못한 세문이갓습니다.<sup>24)</sup>

신시운동에 잇서서도 과거 오륙년간의 운동이 대부분은 모방에 지나지 못한것이 사실이라 하겡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터 나아갈 우리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이 외국문화 전체에서 버서나서 국민덕 동창문학을 걸설함에 잇습니다. 그러케 하기 위하야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가진 모든 조흔것 사상으로나 정서로나 전통으로나 창조력으로나를 발견하고 해석하고노래 하여야겡습니다.<sup>25)</sup>

남의본만쓰고 남의홍내만내든우리가 버리엇든自己를 도로차즈며 自己自身을 省察하고 自己精神을收拾하며 自己그릇을먼저 檢討해야할 緊切한무엇을늘기게되여 이제부터는 모든것에 朝鮮心 朝鮮魂 朝鮮의이 사라다니게되였다.<sup>26)</sup>

인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과거의 신시 운동이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흉내냈다고 단정하고, 앞으로 우리의 것 즉 우리 주변의 사상 감정이나 現代 朝鮮心의 파악이나 국민적 독창 문학을 위한 사상 정서 전통 창조력의 이해나 자기 성찰의 朝鮮心 朝鮮魂 朝鮮의인 것 등의 요구가 나타난다. 이같은 것들은 한 마디로 우리의 것을 작품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內容의 民族主義를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동인이라 할 수 있겠다.

#### E. 寫實主義의 影響에 따른 現實重視의 要求

1920년대 사조의 하나인 사실주의가 表現內容과 表現方法에서 민족주의를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직접 사실주의를 언급한 예도 있고 寫實主義라고 당시인이 생각한 내용인 時代와 社會現實의 充實한 記錄을 끌어서 설명한 예도 있다.

「事實 그대로」라하는 寫實主義의 運動朝鮮의 藝術家가 한번은 通過치 아느면 안 될 重要한 一道程 인가합니다.<sup>27)</sup>

24) 金億, '朝鮮心을 背景삼아', 《東亞日報》(1924. 1. 1).

25) 朱繼翰,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二)', 『朝鮮文壇』 3호(1924. 12), p. 49.

26) 曹雲, '丙寅年과 時調', 『鮮朝文壇』 19호(1927. 2), p. 29.

좀버서 나서 現代朝鮮의 思想과 感情을 그대로 表現하도록 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現代朝鮮의 마음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을 것입니다.<sup>27)</sup>

물개 寫生法을 힘쓰자 함은 自己가 모든 事實에 對하여 眞實하게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그대로 生新하게 그려내자는 것이다.<sup>28)</sup>

「誠實히」「느낀 그대로」——이것은 우리 詩作상의 根本態度라 생각합니다.<sup>29)</sup>

要컨대 從來의 리알리스트는 現實을 客觀的, 現實的, 實在的, 具體的으로 觀察하려 하였지 마는………<sup>31)</sup>

인용의 〈事實 그대로〉〈朝鮮의 思想과 感情을 그대로〉〈自己가 모든 事實에 對하여 眞實하게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그대로〉〈誠實히 느낀 그대로〉〈현실을 객관적 현실적 실재적 구체적으로〉 등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事實이나 現實을 증시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寫實主義의 일면이다. 이같은 寫實主義의 일면이 우리의 現實과 事實로 눈을 돌리게 하여 表現內容과 方法에서 民族主義를 일으킨다. 물론 寫實主義는 表現方法과 직결되지만 그 방법으로 인한 內容의 제약에서 용납되는 민족주의의 발생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F. 國民·傾向派 文學運動의 當爲와 其他

國民文學派의 文學運動은 우리 것을——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문화를 강조하는 문학 운동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기에 그들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얼을 강조하면서 1920년대 文藝 民族主義의 표현 내용면을 유발시켰음에 틀림없으며, 우리 문화의 강조는 형식적인 면에서 전통 형식과 통하여 한국적 형식을 강조하는 형식적 민족주의를 발생케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傾向派 문학은 의도적이든 의식적이든 현실폭력적인

27) 벌섯, '長江어구에서(五月)', 『創造』 7호(1920.7), p. 57.

28) 金岸曙, '作詩法(五)', 『鮮朝文壇』 11호(1925.8), p. 82.

29) 李秉岐, '時調의 現在와 將來(完)', 『新生』 2권 6호(1926.6), p. 33.

30) 梁柱東, '構想과 表現(一)', 『文藝公論』 2호(1929.6), p. 134.

31) 金基鎮, '辨證的 寫實主義(七)', 『東亞日報』(1929.3.6).

면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현실 중시라는 점에서 우리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현실 중시의 민족주의와 관련되어, 내용적 민족주의 발생에 일면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사려된다.

이밖에도 우리 것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거나 외래지향으로부터 반사적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것에 안주한 사람들의 우리 것 강조와, 문학외적인 朝鮮語 運動<sup>32)</sup>과 史學界의 國魂 朝鮮魂의 강조<sup>33)</sup>와 時代精神의 高潮<sup>34)</sup> 등등이 民族主義 詩論의 發生因으로 생각되나 설명을 생략한다.

### Ⅲ. 民族主義 詩論의 樣相

1920년대의 民族主義 詩論의 樣相은 다방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의 民族主義 詩論은 1910년대의 詩論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나를 살피면서, 1920년대 民族主義 詩論의 樣相을 정리하려 한다. 1910년대와의 맥락을 살피면서 1920년대의 民族主義 詩論의 樣相을 정리하려 하기 때문에, 1910년대의 양상인 外來志向과 傳統志向이 어떤 양상으로 변모하면서 1920년대의 民族主義 詩論으로 접맥되나를 주시게 된다.

外來志向은 일단 民族主義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外來志向은 그

32) 1921년에 들어오면서 周時經의 弟子들에 의한 朝鮮語 研究會의 발족과, 이를 전후한 『한글』의 발간과, 國語普及 및 사전의 편찬, 맞춤법의 제정, 표준어 사정, <가가날>의 제정 등에서 알 수 있으며, 國語에 대한 논문도 상당하다. 연도별로 발표된 논문수를 보면, 1924년까지 12편 1925년 4편 1926년 33편 1927년 45편 1928년 8편 1929년 27편으로 나타난다. (『靑陸會會報』 『大韓獨立協會會報』 『學之光』 『青年』 『啓明』 『樂園』 『延禧』 『東明』 『서울』 『號數』 『生長』 『新民』 『中道』 『鮮朝農民』 『東光』 『別乾坤』 『한글』 『한빛』 『新生』 『學生』 등의 통계이다.)

33) 申采浩는 <國魂>을 魂魂으로 나누는데 魂之屬에 國語가 포함된다. (申一澈의 『申采浩의 歷史思想研究』(pp. 208~238) 참조) 또한 그의 『文法을 宜統一』(『丹齋申采浩全集(下)』(pp. 379~380)에서도 볼 수 있다. 崔南善의 朝鮮語主義(六堂崔南善全集 10)에서도 찾을 수 있다.

34) 文學과 관련된 시대정신의 고조는 梁柱東의 '徹底와 中庸—조선이 가지고 싶은 文學—' (『朝鮮日報』 1926. 1. 10~12)과 李光洙의 '中庸과 徹底—朝鮮이 가지고 싶은 文學—' (『東亞日報』 1926. 1. 1~3) 등에서 엿볼 수 있겠다.

후의 변모 양상이 증명적으로 검토되어야 접맥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외래지향의 고수냐? 아니면 굴절적인 變化냐? 혹은 반사적인 반동이나? 등이다. 지속적인 외래지향의 고수일 경우는 민족주의 시론도 아니며 1920년대에 이르면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듯하다. 또한 1910년대의 傳統志向은 일단 民族主義 詩論이라 할 수 있지만 1920년대의 민족주의 시론과 다른 면을 갖고 있어 변화 양상의 검토가 필요되기는 마찬가지며, 지속적인 전통지향의 고수와 전통지향의 굴절적인 변화와 전통지향에 대한 반사적 반동을 가설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지향에 대한 반사적 반동은 이미 민족주의가 아니므로 제외할 수 밖에 없다. 1920년대에 이에 해당하는 쪽은 사상성을 그것도 脫民族的 사상성을 주장하는 프로 시론일 것이다.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통지향을 보이는 쪽이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1910년대의 전통지향과 외래지향이 변모될 수 있는 가능의 경우는 6가지가 있지만, 민족주의와 접맥되지 않는 쪽과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 부재하는 쪽을 제거하면, 본항의 대상이 되는 세 양상——外來志向이 굴절되어 民族主義 詩論을 보이는 쪽과 外來志向이 반사적 반동을 보여 民族主義 詩論이 되는 쪽과 傳統志向이 굴절되어 民族主義 詩論이 되는 세 樣相만이 남는다. 이들 세 양상을 검토하려 할 때 수많은 作家나 그들의 詩論이 산재한다. 수 많은 作家와 그들의 자료를 열거하면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편의상 각 양상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에 한정하고, 그들의 시론에서도 民族主義 詩論을 대표할 수 있는 논문만 인용하면서 설명하려 한다.

#### A. 外來志向의 屈折된 變化 : 自己反省의 民族主義 詩論

外來志向性を 보이는 속에서 외국 시론을 모방 수용한다. 그 수용 과정에서 詩文學의 言語藝術性を 인식하고 外國詩의 詩語와 詩形과 內容이 외국 문학의 주체인 저들 自國語의 특성과 저들 自國民의 특성에 기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韓國詩의 진정한 기반은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시형과 한국인의 생활 사상 감정 정서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自己反省을 보이면서 나타난 民族主義 詩論이다.

### 1. 金 億

金億이 시론에서 민족주의로 돌아서게 되는 동기는 무엇보다도 외국시의 수용과 그로 인한 自己反省이다. 그는 일차로 詩文學의 言語藝術性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더욱 詩歌에 이르러서는 言語가 곧 詩歌라 하지 않을 수가 없서……詩歌에서 言語가 賤待되며 驅使된다 하면 그 詩歌는 文字의 排列에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sup>35)</sup>

<言語가 곧 詩歌>라는 표현과 <言語가 賤待되며 驅使된다 하면 그 詩歌는 文字의 排列에 지내지 못하다>는 표현은 단적으로 金億이 詩文學의 言語藝術性을 인식하고 있는 단면이다. 이는 詩語로 韓國語의 강조와 연관된다.

이 점에서 朝鮮 詩歌의 밭지 아니할 수업는 길의 하나로는 朝鮮말을 尊重함에 있다고 한다. 남의 말을 빌어다가 自己를 表現함은 실은 일입니다. 누구라도 言語를 尊重치 아니하고 賤待와 驅使함으로써 眞正한 表現을 어들 詩歌를 내일 수가 있겠습는가! 詩人의 個性이라는 도간에서 녹아 淨化된 言語인 이상 그 言語에는 그 詩人의 詩歌만이 담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sup>36)</sup>

인용에서 보이는 韓國 詩歌가 밭아야 할 길인 韓國語의 존중은 시어로서 한국어의 강조이다. 이 한국어 강조는 다시 한국어 시형의 강조로 연결된다.

우리의 在來 民謠 調 그것을 가지고 엮어 케도 아릿답게 길이로 짜고 가로 역겨운 調和를 보여 주었습는가! 나는 作者에게 民謠詩의 길잡기를 간절히 바래는 바입니다.<sup>37)</sup>

朝鮮 詩歌의 詩形은 다른 곳에서 求할 것이 아니고 朝鮮 사람의 思想과 感情에

35) 金億, '밭아질 朝鮮 詩壇의 길(上)', 《東亞日報》(1927.1.2).

36) *Ibid.*

37) 金億, '詩壇의 一年', 『開闢』 42호(1923.12) p. 44.

또는 呼吸에 가장 갖잡은 時調와 民謠에서 求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sup>38)</sup>

와 같이 우리의 시형을 民謠나 時調에서 찾으려 한다. 이로써 일단 岸曙는 表現媒體인 한국어와 表現形式인 民謠나 時調에서 民族主義的 양상을 보이는데, 그의 서구 문학 지향성을 고려할 때 외국시의 수용에서 오는 屈折된 변화의 自己反省의인 民族主義 詩論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밧아질 朝鮮詩壇의 길’<sup>39)</sup>이나 ‘朝鮮心을 背景삼아’<sup>40)</sup>에서 당시까지의 외래적이었던 내용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周圍를 背景잡은 思想과 感情> <現代의 朝鮮心> <우리의 思想> <향토성> 등과 같은 우리의 내용을 강조함에서 외래지향으로부터 굴절 변화된 민족주의 詩論의 단면을 파악케 된다.

## 2. 朱耀翰

주요한의 민족주의는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에서 거의 찾아진다. 시의 言語藝術性 인식은 다음 인용에서 발견된다.

노래로 말하여도 이는 문학에 속한 것이니 음악이나 무도나 도각과 달리 문자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요. 문자중에도 음률을 지니는 운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외다.<sup>41)</sup>

시를 문자와 연결시키고 그것도 음률을 지키는 운문의 형식과 연결시키는 시의 言語藝術性의 파악이다. 이는 한국어의 탐색과 강조로 연결된다.

둘째는 조선말의 미와 힘을 새로 차저내고 지어내는것입니다.<sup>42)</sup>

장차는 조선말의 진정한 미를 차저 드러갈것은 의심없스며 또 그리 하여야 할것입니다.<sup>43)</sup>

이처럼 조선말의 진정한 미를 갈구하는 양상은 마침내 民謠와 童謠로 향한다.

38) 金億, ‘밧아질 朝鮮詩壇의 길(下)’, 《東亞日報》(1927.1.3).

39) 金億, ‘밧아질 朝鮮詩壇의 길(上·下)’, 《東亞日報》(1927.1.2~3).

40) 金億, ‘朝鮮心을 背景삼아’, 《東亞日報》(1924.1.1).

41) 朱耀翰,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二)’, 『朝鮮文壇』 2호(1924.11), p. 47.

42) 朱耀翰,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一)’, 『朝鮮文壇』 1호(1924.10), p. 50.

43) 朱耀翰,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三)’, 『朝鮮文壇』 3호(1924.12), p. 43.

이런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발족점으로 한시도아니오 시도도 아나오 민요와민동요라 함은 나의 전부터 주장하는 바이이다.<sup>44)</sup>

자유시의 시인으로 알려진 주 요한이 외래지향적 모방이 훨씬 지난 1924년에, 저들 신시로부터 저들의 언어와 형식과 내용으로부터 돌아와, 다시 자유시 내지는 신시의 출발점을 민요나 동요에서 찾고 있음은, 저들의 시로부터 배운 것을 우리 것 창조에 사용하는 외래지향의 굴절된 변모로 自己反省의인 民族主義 詩論이다.

한국어의 강조와 한국적 시형인 민요와 동요의 출발점에서 한국적인 내용의 강조도 보인다.

그러면 이 신시운동의 전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적어도 나의 생각으로는 두가지의 목표가 있다고합니다. 첫째는 민족적 정조와 사상을 바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sup>45)</sup>

인용을 '신시운동에 있어서도 과거 오류년간의 운동이 대부분은 모방에 지나지 못한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sup>46)</sup>의 도움으로 해석하면, 인용은 외래모방의 내용으로부터 우리의 정조와 사상의 내용으로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외래지향은 좀더 우리 것에 밀착하게 되는 동기로 외래지향의 결과 自己反省의인 民族主義 詩論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 B. 外來志向의 反射된 反動; 自己回復의 民族主義 詩論

自己反省의 民族主義 詩論과 같이 일단은 外來志向을 보인다. 그 志向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반사적으로 우리 것에 되돌아와 自己回復을 보이면서 民族主義 詩論을 발생시키는 양상이다. 이에 속하는 인물로 崔南善과 洪思容이 있다.

### 1. 崔南善

六堂이 개화기 이래의 唱歌와 新體詩를 주도한 인물임은 주지의 사실이

44) 朱耀翰,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二)', 『朝鮮文壇』 2호(1924.11), p.47.

45) *Ibid.*

46) *Ibid.*

다. 唱歌나 新體詩가 外來志向 아래서 펼쳐진 詩歌임도 사실이다. 그만큼 六堂의 外來志向은 매우 큰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외래지향은 계속적으로 詩歌에서 발전치 못하고 文學이 아닌 上古史로 도피한다.<sup>47)</sup> 그러나 그의 文學的 생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개화기와 1910년대의 외래지향적인 唱歌나 新體詩를 떨쳐버리고 1920년대에 이르러 우리의 시조를 고수하는 自己回復의 民族主義 詩論으로 전환한다. 물론 그가 1920년대에 이르러 우리의 전통 형식인 시조만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시대 정신보다는 1910년대 후반에 그가 시작한 우리 것으로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

六堂이 1920년대에 時調로 돌아온 것을 그의 글에서 보면

그러나 즐잡아도 時調가 人類의 詩의 衝動 藝術의 鬱悒의 流露宜揚되는 主要한 一範疇——詩의 本體가 朝鮮國土 朝鮮人 朝鮮心 朝鮮語 朝鮮音律을 通하여 表現한 必然의 一様式——世界은 各系統 又 潮流의 文化 藝術이 湧러서 湧러서 朝鮮에 란체로 들어가서 밋쳐나온——걸려나온——精液<sup>48)</sup>

이라 하여 時調는 인류의 시적 충동이 조선이란 체에 걸려나온 一精液으로 朝鮮國土 朝鮮人 朝鮮心 朝鮮語 朝鮮音律을 통한 것으로 時調를 강조한다. 이런 時調의 강조는 民族主義 文學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생활 사상 감정 정서를 한국적 형식으로 표현한 문학이란 뜻을 철저히 확인시킨다. 게다가 다음호에 발표된 '時調胎盤으로의 朝鮮民性和 民俗'<sup>49)</sup>에서는 한국인의 人種의 특성과 국민성을 운위하면서 시조가 우리 민족의 최대 詩歌임을 확인시키고자 한다. 두 글을 통해 본다면 1920년대의 六堂은 문학에서 완전히 時調만을 통한 民族主義 詩論이 되고 있음을 확인케 된다.

결국 六堂의 초기에서 볼 수 있는 강한 외래지향성과 중간의 공백기와

47) 1910년대 후반부터의 '단군론' '심춘순례' '백두산근참기' '조선유람가' '금강예찬' '조선역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48) 崔南善, '朝鮮 國民文學으로의 時調', 『朝鮮文壇』 16호(1926.5), pp. 3~4.

49) 崔南善, '時調胎盤으로의 朝鮮性和 民俗', 『朝鮮文壇』 17호(1926.6).

김억이나 주요한과 같이 외래지향에서 언어 예술성을 확인치 못하고 1926년을 전후한 時調만의 강조로 보아, 六堂은 외래지향에서 반사적인 반동을 보이면서 자기를 회부하는 민족주의 詩論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 2. 洪恩睿

露雀은 『白潮』를 중심한 눈물의 낭만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白潮派 同人의 경향과 작품으로 볼 때에 露雀의 시적출발은 결코 전통지향의 산물이 아니며 그 시대를 풍미한 自由詩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그의 첫 작품인 「푸른 언덕 가으로」(1919)가 발표된지 3년 후의 작품들에 민요로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민요풍의 시가 약간 있다<sup>50)</sup>는 점과 「봄은 가더이다」(1922)의 뒤에 경상도 지방의 민요를 소개한 바가 있다<sup>51)</sup>는 점에서, 露雀의 초기 경향이 自由詩라는 외래지향에서 민요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전통지향으로의 전환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때는 민요풍보다는 自由詩의 외래지향성이 우세함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량에서 외래지향의 自由詩가 우세하고<sup>52)</sup> 양적으로 열세한 민요풍의 시마저 민요를 표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초기시 경향은 역시 외래지향적인 자유시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1928년의 ‘朝鮮은 메나리나라’에서 본다면 완전히 전통을 지향하는 민족주의 詩論의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메나리나라 백성이다. 메나리나라로도다가자. 내것이안이면 모다 밭어온것뿐이다. 요사이 혼한 「양시조」 서루른 藝文風月 도막도막 잘터놓는 新詩타령 그것은 다—무엇이냐. 되지도 못하고 어색스러운 영도장사를 일부러 애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멋의제국으로나 놀어라.<sup>53)</sup>

인용의 전반부에서 내 것이 아니면 모두 빌려온 것이라는 전제와, 메나리의 나라로 돌아가자는 결정적인 전환을 보여준다. ‘양시조’와 ‘新詩타

50) 金澤東, 『韓國近代詩人研究(1)』(서울; 一潮閣, 1974), p. 151.

51) *Ibid.*, p. 152.

52) 金澤東 教授의 作品年譜에서 民謠의인 작품들을 살피면 알 수 있다. (*Ibid.*, pp. 119~161).

53) 洪恩睿, ‘朝鮮은 메나리나라’, 『別乾坤』 12. 13 합병호(1928. 5), p. 174.

령'은 서구적인 자유시나 그것에 영향받은 시조를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 이도 거부하고, 諺文風月은 전통적인 시조라 할 수 있는데 이도 또한 거부한다. 결국 민요 이외의 당시에 있던 모든 시가를 거부한다. 이는 초기의 외래지향에 대한 반사적 반동이라 할 수 있으며 '제멋의 제국으로나 놀러라'는 반사적 반동의 성격을 확인시킨다.

露雀이 민요로 돌아옴은 민요가 그저 우리 것이기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민요를 <그저 그백성이 저절로 그러저러 속잡히 간직해가진 거룩한 녀> <이나라백성의 韻律的生活歷史>로 생각하면서 찾아낸 보물이다. 韻律的生活歷史는 우리 시형을 '녀'은 우리 것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각각 생각된다. 여기에 露雀은 '메나리는 글이안이다. 말도안이요 쪼 시도안이다'<sup>54)</sup>라고 주장하지만, 민요의 口演性을 고려할 때 우리말의 표현이다. 이런 점에서 露雀의 민요 강조는 우리말과 우리의 시형과 우리의 생활 사상 감정 정서 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詩論이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露雀이 초기에 자유시를 쓰면서 보였던 외래지향이 1928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외래 것을 거부하면서 우리 것으로 전환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露雀 역시 외래지향의 반사적 반동으로 형성된 민족주의 詩論의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 C. 傳統志向의 屈折된 變化: 自己實現의 民族主義 詩論

출발에서부터 외래지향보다는 전통지향을 강하게 보여주면서도, 옛 것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면서 自己를 實現하는 民族主義 詩論이 있다. 예의 인물로 金素月과 李秉岐를 들 수 있다.

#### 1. 金素月

素月이 民謠詩人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金億의 찬사<sup>55)</sup>로 보아도 짐작이 간다. 시종일관된 民謠詩 지향으로 素月이 전통지향적이었음은 부정할 수

54) *Ibid.*, p.171.

55) 註 37)과 같음.

없을 듯하다. 그러나 그에게 시를 지도한 사람이 金億이란 점에서 金億의 民謠志向이 素月の 민요지향을 유발시킨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金億의 민요지향이 素月の 민요지향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면, 素月の 민요지향은 金億의 외래지향에서 자기반성을 보이면서 나타난 부산물의 한 영향이 되어, 크게는 본장의 A인 외래지향의 굴절된 변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億과 素月の 民謠志向은 4·5년의 時差를 보이면서 素月이 앞서, 素月の 민요지향은 결코 金億의 영향이 아닌 듯하다. 素月の 민요지향은 그의 첫 문단 발표 작품이라 생각되는 『創造』 5호(1920.3)의 「浪人の 涙」「夜の 雨滴」「午過의 泣」「그리워」「春崗」 등에서 이미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金億의 민요지향은 1924년의 ‘朝鮮心を 背景삼아’나 1926년의 ‘뱀아질 朝鮮詩壇의 길’에서 강하게 부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素月の 민요지향은 金億의 그것과 거의 무관하며 전통지향의 맥락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초기부터 素月이 보인 민요 중시의 전통지향은 ‘詩魂’(1925.5)에서 결코 단순한 우리 것의 맹목적인 고수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수용하면서 自己를 實現하는 쪽에 있음을 파악케 한다.

그러면 詩作의 價値如何는 적어도 그 詩作에 나타난 陰影의 價値如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陰影의 價値如何를 識別하기는 苦. 詩作을 批評하기는 至難의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나의 愛慕하는 師匠. 金億氏가 拙作「님의 노래」……(작품 생략)……를 評하심에 넘어도 탐아 밋까지 드려다보이는 江물과 가쁜 詩다. 그 詩魂 自體가 넘어왔다.”고 하시고 다시 拙作. “……(작품 생략)……을 評하심에 “詩魂과 詩想과 리듬이 步調를 가죽히 하여 거러나아가는 아름다운 詩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對하여 나는 첫 재로 가쁜 한 사람의 詩魂 自體가 가쁜 한 사람의 詩作에서 今時에 맞맞겠다 겁겨겠다 할 수 없다는 것과 또는 詩作마다 서로 別다른 詩魂이 생기는 것이 안이라는 것을 좀더 分明히 하기 爲하여. ………. 둘째로는 두 個의 拙作이 모두다. 그에 나타난 陰影의 點에 있어서도 亦是 各個特有의 美를 가지고 있다고 하려 합니다.<sup>56)</sup>

인용이 말해 주듯이 作品의 價値를 素月은 陰影에 金億은 詩魂에 두고,

56) 金素月, ‘詩魂’, 『開關』 59 (1925.5), pp. 15~17.

金億은 詩魂이 변하는 것으로 素月은 不變하는 것으로 보며, 素月은 陰影이 時間과 空間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詩魂은勿論境遇에 따라大小深淺을自在變換하는것도안인同時에 時間을超越한存在입니다.’<sup>57)</sup>의 超時空의인 우리의 詩魂은 추상적인 우리의 詩魂으로 우리 민족이 가진 詩魂을 말하면서 타의 조선혼이나 조선얼과 통한다. 단지 전반적인 조선혼이나 조선얼이 아니라, 조선혼이나 조선얼의 詩的 측면만의 제시라 할 수 있다. 이런 詩魂이 현현되면서 작품에 나타난 陰影은 時間과 空間에 따라 변한다. ‘詩作에도亦是詩魂自身的變換으로 말미암아詩作에異同이 생기며優劣이 나타나는것이안이라 그時代며그社會와 또는當時情境의如何에依하여作者의心靈上에無時로나타나는陰影의現象의變換되는때지나지못하는것입니다.’<sup>58)</sup>라 하여, 시대나 사회나 당시 정경에 의해 나타나는 陰影을 극히 강조한다. 이같은 시대성과 사회성의 강조는 근대시의 우리의 생활 사상 감정 정서와 통하면서 素月の 민요지향이 결코 전통성에만 기반을 둔 전통지향이 아니라, 초기로부터 지녀온 전통지향에 시대나 사회의 새로운 것을 수용하면서 굴절 변모를 보이는 자기 실현의 민요지향적인 민족주의 詩論이라 할 수 있겠다.

## 2. 李秉岐

가람은 1923년 이후 『朝鮮文壇』에 시조를 발표한 이래 시조시인으로 유명하다. 초기의 시작에서는 별다른 변모없이 전통적인 시조를 志向한다. 그 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조를 연구하다가 1929년에 이르러 의례것을 수용한 時調新運動을 전개하여 詩史的으로 높은 위치를 획득한다.

그런데 이新運動에 대하여 생각든바를 이에 統括하여 말하면 첫째 朝鮮語의 美를 찾아쓰자. 둘째 寫生法을 힘쓰자. 셋째 新律格을 지어내자. 넷째 唱法을 고치자함이다.<sup>59)</sup>

57) *Ibid.*, p. 12.

58) *Ibid.*, p. 13.

59) 李秉岐, ‘時調의 現在와 將來(完)’, 『新生』 2권 6호(1929.6), p. 32.

라고 時調新運動의 끝자를 피력한다. 구체적으로 韓國語의 美를 찾아쓰자는 설명으로 ‘놀애는 言語로 말미암아 表現되는 한藝術이라 놀애의 生命과 價値가 言語것에 매어있다 하여도 可하다……조선사람은 남의 나라의 글이나 말에는 아니觀察한것이 아니지마는 오늘까지 우리말이나 우리글에는 泛泛하기 말할것없다. 이러하든 우리는 이러할줄을 안다하면 우리말 우리글에 대하여더욱이 힘써 나가야 할것이다’<sup>60)</sup>라고 문학의 언어에 術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강조한다. 寫生法을 힘쓰자도 ‘自己가 모든事實에 對하여 眞實하게 보고듯고 늦기는바를 그대로 生新하게 그려내자’<sup>61)</sup>고 한다. 寫生法은 물론 서구의 寫實主義와 관련된 말이라 할 때에, 그의 寫生法 강조는 外래적인 것의 수용이라 할 수 있다. 新律格을 지어내자는 것도 전통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고 전통에 外래적 影響에 따른 수용적 발전을 보인다. ‘다시말하면 從來一般的으로 쓰든音律만 쓸것 아니라 特殊的으로쓰든 音律도쓰며 自己의獨特한 「리듬」을 表現하자는것이 곧셋재 新律格을 지어 내자는 意味이다’<sup>62)</sup>에서 전통의 지속과 外래적 이거나 시대 정신적인 新律格을 수용하는 變化를 보인다.

이처럼 초기에 전통지향만을 보이다가 1929 年을 전후로 시의 언어에 術성 파악에 기인하여 韓國語의 美를 강조하고 <새롭게 眞實하게>와 같이 사실성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生活에 思想 感情도 激烈한 變化를 하고 있는 이때>에 그에 맞는 新律格을 쓰자고 주장하는 가람에서 寫生法이나 新律格이 서구적이든 시대정신의 요청이든, 전통지향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면서 서 변모하는 自己實現의 민족주의 시론을 파악할 수 있겠다.

#### IV. 民族主義 詩論의 共通素

1920 年대의 시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문학의 양상은 앞 장에서와 같이

60) *Ibid.*

61) *Ibid.*, p. 33.

62) *Ibid.*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의 다양한 양상들이 깔고 있는 共通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共通分母를 갖는다. 그 共通的 分母인 共通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韓國語의 強調

文學이 특히 詩歌가 言語藝術이란 성격을 개화기 이래로 거의 완벽하게 파악 인식한 것은 1910 년대의 극히 후반부에 등장하는 자유시의 이입과 영향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자유시를 이입 수용한 외래지향파들이 자유시나 외국시로부터 그들 시가 존재하는 특질을 외국 것에서 발견한다. 외국시가 외국시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들 외국어의 특질에 있음을 인식한 외래지향자들은 韓國詩가 韓國詩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韓國語에 기초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韓國語의 특질과 그에 기반한 美를 찾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외래지향의 굴절된 변화인 자기반성의 민족주의 시론이 韓國語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이에 비해 외래지향을 보였다가 반사적 반동을 보이면서 우리 것에 집착하는 자기회복의 民族主義 詩論은 외래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우리 것에 집착하는데, 그 속에는 우리의 얼과 넋이 담긴 韓國語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韓國語를 부상시킨다. 끝으로 전통지향에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면서 자기실현을 보이는 쪽도 우리 것의 고수라는 측면에서 韓國語의 강조는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양상이다.

이처럼 韓國語를 강조하게 된 이유야 다르지만, 1920 년대 민족주의 시론은 韓國語 강조라는 하나의 공통소를 갖고 있다.

### B. 韓國的 詩形의 強調

외래지향을 보이다가 詩의 言語藝術性 認識과 외국시의 언어적 존재 양식을 파악한 외래지향파의 첫번째 반성이 韓國語로 돌아옴이라면, 다음에 일어난 것이 詩形의 문제다. 詩形 역시 그 나라 말의 특성에 기반하고 그 나라 민족의 호흡에 적합한 것이라는 인식이, 韓國的 詩形도 韓國語와 한

국 민족의 호흡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반성이 일어나면서 일차로 찾는 것이 韓國의 傳統的 詩形이다. 이로 인해 金億은 그 시형을 時調와 民謠에서 朱耀翰은 民謠와 童謠에서 찾는다.

이에 비해 외래지향을 보이다가 반사적 반동을 보이면서 우리 것에 안주하는 자기회복의 시인들도 우리 것에서 벌써 韓國의 詩形을 찾고 있다. 六堂의 경우는 時調의 형식에서 露雀의 경우는 民謠의 형식에서 각각 찾고 있다.

끝으로 전통지향을 보이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여 자기실현을 보이는 민족주의 시론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韓國의 詩形에서 출발함을 파악할 수 있다. 素月의 民謠形式과 가람의 時調形式이 예다.

이처럼 1920년대 民族主義 詩論의 여러 양상들이 보여주듯이, 韓國의 詩形을 強調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時調 民謠 童謠 등과 같이, 韓國人이 수용해 온 전통적 시형에서 韓國의 詩形을 모색하는 양상이 공통이다. 따라서 1920년대 민족주의 시론의 또 다른 공통기반이 韓國의인 詩形을 韓國人이 수용해 온 형식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C. 韓國(人)의 內容의 強調

A와 B의 韓國語와 韓國의 詩形의 強調가 표현매체와 표현형식의 강조라면 본항의 韓國(人)의 內容 強調는 표현내용의 강조이다.

앞에서 살핀 외래지향과 자유시인들의 작품내용적인 반성은 두 말할 것도 없이 韓國의인 것을 표현하려는 전환점이 된다. 게다가 사실주의의 입과 수용이 현실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대정신도 당시의 시대정신을 강조하게 한다. 이로 인해 韓國人의 생활 사상 감정 정서를 표현케 된다. 이에 비해 외래지향을 보이다가 반사적 반동으로 우리 것에 안주해 버리는 일군도, 역시 韓國人의 것을 내용으로 작품을 형상하는데, 六堂과 같이 전통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경우와 자기반성으로 인해 되돌아오는 쪽과 같이 현실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전통지향에서 새로

운 것을 수용하는 쪽도 韓國人の 것을 강조함에는 틀림이 없다.

결국 한국인의 것을 작품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귀결점은 공통이며 단지 한국적인 것으로 향한 동인에서만 민족주의 시론의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韓國 것에는 전통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경우와 현실적인 韓國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두 경우 모두 韓國 것이라는 점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공통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다면 1920년대 민족주의 시론은 韓國語와 韓國의인 詩形과 韓國의인 內容 強調라는 共通素를 갖고 있다. 이 공통소를 민족주의적인 한국문학의 정의인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생활 사상 감정 정서를 한국(인)적 형식으로 표현한 문학에 비교하면, 1920년대 민족주의 시론의 공통소 곧 韓國 民族主義 文學과 일치한다. 따라서 詩論의 批評文學史에서, 1920년대를 韓國 民族主義 詩論의 성립기라 하여도 좋을 것 같다.

## V. 結

言語文學의인 측면에서, 1920년대 詩論의 韓國 民族主義 文學의 성격을 詩論 批評文學史에 정립하기 위하여, 1920년대 詩論에 나타난 民族主義 詩論의 言語文學의 發生因과 樣相과 共通素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통해 詩論 批評文學史上 韓國 民族主義 詩論의 성립기를 확인한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民族主義 詩論의 言語文學의 發生因으로, ① 文學의 言語藝術性 認識에 따른 韓國語의 探索 必要와 ② 外國詩語가 그 나라의 言語 特性에 기반한다는 사실의 인식에 따라, 韓國詩語는 韓國語의 特性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당위에 따른 韓國語 探索의 要求와 ③ 外國詩形이 外國語의 특성과 外國人の 호흡에 맞는 시형임을 인식하면서 韓國詩形은 韓國語의 특성과 韓國人の 呼吸에서 찾아야 한다는 필연과 ④ 당시까지의 문학이 표현한 내

용이 외래적인 것임을 반성하면서 필요로 대두된 韓國의 內容의 강조와 ⑤ 사실주의의 이입 수용에 따른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의 강조로 인한 당시 한국의 현실과 사실의 대두와 ⑥ 국민문학파의 한국적 사상·문화 등의 강조에 따른 한국적 내용과 형식의 강조와, 경향문학파의 고발문학적 성격에 기인한 당시 한국의 사실 표현 등등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韓國 民族主義 詩論의 言語文學的 發生因을 근간으로, 非言語文學的인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韓國 民族主義 詩論은, 1910년대의 전통지향과 외래지향과의 접맥·변화의 관계에서, 이론상 네 양상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난 양상은, ① 외래지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문학의 言語藝術性을 파악하고 자기반성을 보이면서 民族主義 詩論으로 돌아오는 경우와 ② 외래지향을 보였다가 그에 대한 반사적 반동으로 우리 것에 되돌아와 자기를 회복하는 民族主義 詩論의 경우와 ③ 전통지향의 지속과정에서 외래적인 것이나 시대적인 것을 수용하면서 자기를 실현하는 民族主義 詩論의 경우 등의 세 양상을 보인다.

이들 民族主義 詩論의 세 양상은 共通素를 갖고 있는데, ① 詩文學의 美的 目的을 위해서든 전통의 고수든 변주에서든 韓國語의 強調과 ② 韓國語의 특성과 韓國人의 呼吸에 맞는 詩形의 추구는 韓國의 詩形의 고수든 변주든 民謠·童謠·時調와 같은 韓國의 詩形의 강조와 ③ 외래지향의 반성이든 韓國的인 것의 고수든 변주든 韓國人의 생활 사상 감정 정서라는 韓國的인 내용의 강조 등이다.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적 생활 사상 감정 정서를 한국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韓國 民族主義 文學의 개념이라 할 때, 이 개념과 앞의 1920년대 詩論에 나타난 民族主義 詩論의 共通素를 비교하면, 양자의 일치점을 발견케 된다. 이런 점에서 詩論 批評文學史上 1920년대를 韓國 民族主義 詩論의 성립기라 결론 내릴 수 있겠다.

(※ 참고 문헌은 번잡을 피하기 위해 脚註로 대신하고자 한다.)

## 〈英文要約〉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istic Poetics in the 1920's through Language-Literary Aspects of Literature

Yang, Hee-cheol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y did the nationalistic poetics in Korean literature appear in the 1920's? How did the phases of the nationalistic poetics develop? what are the common denominators of the various nationalistic poetics?

This study approaches those questions through language-literary aspects of literature by examining the extant essay on poetry and poetics in the 1920's.

As for some reasons of the happening of the nationalistic poetics; ① The re-recognition to the language-literariness: Poets who worked in the 1920's increasingly recognized the language-literariness, so they emphasized the Korean language. It made them select the nationalistic poetics in language. ② The recognition of the traits of the foreign poetic diction and the necessity of the investigation to Korean language: From the Gae-Hoa Period to the 1910's and the 1920's, many Korean poets tried to mimic western-poetry. They recognized the fact that foreign poetic diction is based on the traits of foreign language, so they tried to emphasize the traits of the Korean language. This is another reason they selected the nationalistic poetics in language. ③ The recognition of foreign poetic form and the emphasis on the Korean poetic form: They recognized the fact that foreign poetic form is based on the traits of their language, race, racial spirit, etc, so they tried to find a form based on the Korean traits. This is one

reason they selected the nationalist poetics in the poetic form. ④ The self-examination of the expressive content in the past toward western-orientation and the desire for self-expression: Many Korean poets tried to mimic the western poetic form and content in the past, but they reflected on their past mimicry, so they tried to find Korean content. This is one reason they selected the nationalistic poetics in poetic content. Another reason may be based on the realism's emphasis on the present content, the Kuk-Min-Pro literary clubs' nationalistic movement, the Cho-Seon-Mal movement, the emphasis on the Cho-Seon-Spirit, the spirit of the time in the 1920's, etc.

The variety of the nationalistic poetics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① One is that of the transition from the western-orientation to the nationalistic poetics by self-examining their past western-orientation. They discovered the style of foreign literature through the western-orientation, so they tried to find the style of the Korean literature in Korean language, Korean poetic form and Korean content. Kim Eok and Ju Yo-han belong to this category. ② The second category is that of the transition from the western-orientation to the nationalistic poetics by completely denying the reception of the foreign literature. They did not discover the style of foreign literature through the western-orientation, so they tried to return to traditional literature, and as a result, they emphasized only the Korean language, Korean traditional forms and Korean content. Choi Nam-seon and Hong Sa-yong belong to this category. ③ The last category is that of the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orientation to the traditional-orientation added in the western-orientation's poetics. They departed from traditional-orientation, then they accepted the foreign poetics. But their base emphasized the Korean language, Korean form, and Korean content. Kim So-weol and Lee Byeong-ki belong to this category.

The reasons for the happening of the nationalistic poetics in the 1920's and the phases in their development are various. But in spite

of the variety, they have common denominators: to emphasize the Korean language, Korean form and Korean content. If we regard only these three common denominators themselves, they don't have important value in literary study. But if we compare these three common denominators with the nationalistic definition of Korean literature, they have important value. It is the nationalistic definition that Korean literature is that literature which Koreans wrote with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forms, Korean life, thoughts, feelings, and emotions. By comparing the nationalistic definition of the Korean literature with the three previous common denominators, we can find that the three previous common denominators are essential in the definition of the nationalistic Korean literature. As a result, we can say that a main kind of the poetics of the 1920's Korean literature is the nationalistic poetics and that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istic poetics was formed in the 1920's.